핀테크 확산…현금 필요없는 시대 '성큼'

<금융+IT>

지난해 이용금액 신용카드 1위

모바일 결제서비스도 증가

노령층 불편·개인정보 유출

'현금 없는 사회' 우려도 커져

주부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물건을 사고 나서 스마트폰을 꺼내 마트에 있는 단말기에 갖다 대는 것으로 계산을 마친다.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도 유심칩에 탑재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를 할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시대는 이제 사라진 걸까.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수단이 옮겨진 지 오래다. 핀테크(금융+IT)의 발달로 금융거래에서 아예 현금도, 플라스틱 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급수단별 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보유비율은 89%였다. 이는 캐나다(81%), 미국(67%), 독일(33%), 오스트리아(24%)를 모두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용금액 기준 지급수단도 신용카드 비중이 50.6%로 가장 높았다. ▲체크 및 직불카드(19.6%) ▲현금(17%) ▲계좌이체(1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금액기준 신용카드 이용비중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도 캐나다(41%), 미국(28%) 보다 높고, 독일(7%), 프랑스(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용건수 기준으로도 신용카드 비중은 34%를 나타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1%에 불과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2%에 그쳤다. 카드 사용비중이 높은만큼 건수 기준 현금 이용비중은 우리나라가 38%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82%, 미국이 4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현금이용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카드 등 전자지급 수단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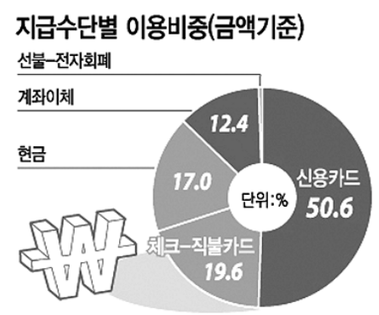
현금의 사용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과 삼성은 각각 애플페이와 삼성페이라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들고 나왔다.

실제, 덴마크는 내년 1월부터 식당과 주유소, 옷가게에서 모바일·신용카드 결제만 허용될 전망이다. 스웨덴은 온라인 결제를 제외한 전체 상거래 중 70% 이상이 현금 대신 신용·직불카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거래에서 아예 현금도, 플라스틱 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의 도래가 예고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외계층은 신용이 낮아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고 금융사기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현금이 사라질 경우, 현금 사용에 익숙한 노령층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금융사기 위험 차단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비현금 결제에 있어 금융사기 위험을 차단하고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등 보안기술에 금융권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료:한국은행의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핀테크지원센터가 개최한 제2차 데모데이(Demo day)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시현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깜빡잊고 못받은 보험금 찾아준다

금감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지급 지연 이자율도 10~15%로 높이기로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모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을 대폭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방안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수의 보험에 들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고려됐다. 일단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아울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보험사고 발생 때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할 때 해당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금감원이 그 적정성을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주목

중소형주 강세 지속 전망

증권·반도체·정유 관심을

지난 주 증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시장의 연속이었다. 6월 마지막 주말은 그리스의 채무협상 난항과 유로존 탈퇴 등의 리스크 노출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장하는 아시아 증시, 그 중에서도 초반부터 큰 하락세가 나왔던건 역시 코스피(KOSPI)였다. 6월30일까지 돌아오는 그리스의 IMF대출 상환 마감시한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는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에 위험자산은 급락하며, 반대로 안전자산인 미달러화와 국채가격은 상승 반전했다. 결국 주 초반은 그리스사태로 인한 리스크 회피 현상으로 당사자들만 유럽증시의 폭락과 함께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조정을 가져왔고 미 증시 역시 피해갈순 없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중국 증시는 과열권에서의 차익실현과 사상 최대 규모의 IPO(기업공개) 물량 등에 대한 부담과 투자심리 악화로 그 어느 증시보다 급락을 보였다. 6월 29일, 30일 양일간 유럽은 6% 가량 하락했고 중국 증시는 6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25%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반전은 그 이후부터였다. 그리스 채무 협상 난항 속에 채권단의 새로운 제안이 나왔고, 그리스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 7월5일 그리스의회는 모든 결과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한 때 2050선을 하향이탈했던 코스피 지수는 2100선을 회복하기도 했고 반대로 장중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또 신고점을 갱신해 마감했다.

이번 주 초반에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가 사전 조사 예측대로 유로존 잔류로 나온다면 글로벌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 회피와 위험자산 선호 속에 증시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 2주간 25% 가량 급락한 중국 증시가 중국 당국의 다양한 증시 부양 방안을 기대하며 급반등에 나설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국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라면 중국 정부가 거래세 인하 또는 IPO 임시중단 등의 강한 호재성 방안을 내놓는지를 살펴본 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보인다.

국내 증시는 그리스 사태에 직접 영향을 받겠지만 최근 중소형주의 강한 상승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주 펀드로의 자금 지속 유입은 결국 중소형주의 강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일부 과열도 보인다. 실적대비 지나친 고평가로 보이는 종목보다는 업종 내 저평가 종목 또는 그리스 사태 완화시 그간 눌렸던 코스피 종목들 중에 실적 개선이 보일 수 있는 증권 반도체 화학 정유 등의 실적 업종도 저점에서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윤자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